

# “절 복구보다 수재민 돕기가 먼저”

집중호우로 수해가 발생한지 열흘이 지난 7월 27일 정선 나전중학교는 학생 대신 군인들로 가득 차 있었다. 정선군 재해복구를 위해 파견된 23사단 58연대 장병들의 임시숙영지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 다시 내리기 시작한 비로 복구작업을 중단하고 휴식을 취한

경희 합장단장도 양념을 다지던 일손을 놓고 스님과 조희장을 거든다. 정오, 배식이 시작되자 장병들이 한꺼번에 몰렸다. 배식을 담당할 취사반 장병들이 줄부터 세운다. 사단에서 부사단장과 참모들이 특식을 준비해준 녹유사 스님과 신도들에



강릉 녹유사 주지 성인 스님과 신도들이 정선지역에 파견된 수해복구활동을 펼치고 있는 군장병들에게 자장면을 만들어 배식하고 있다.

## 강릉 녹유사, 사찰 피해 불구 대민지원 복구 군장병에 매일 자장면 급식 봉사

장병들은 점심시간이 다가오자 취사반 근처에서 식판을 든 채 서성이고 있었다. 강릉 녹유사가 준비한 ‘오늘의 특식’ 자장면을 먹기 위해서다. 자장면 냄새가 취사반 밖으로 솔솔 새 나오자 장병들은 더 안달이 나 보채기 시작했다. “아 냄새! 언제 다 되는거예요?” “다 됐어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면을 뺐던 녹유사 주지 성인 스님과 조봉환 신도회장이 급히 장병들의 성화(?)를 진정시킨다. 한

게 감사의 인사를 왔다. 강릉의 오지 왕산면 대기2리에 위치한 녹유사도 이번 집중호우의 위력을 피하지 못했다. 탄광 사태를 개조해 만든 변변치 못한 도랑이지만, 요사채가 집수되고 토사가 밀려내려와 많이 훼손됐다. 하지만 성인 스님은 사찰복구는 접어두고 지역 피해민가를 먼저 챙겼다. 먹을거리와 옷가지를 들고 주변 강릉 왕산면 일대의 수재민들을 찾아 나뉘었다. 26일부터 인근지역을 벗어나 평창 진부면과 대화면, 정선 북평

등지에서 복구에 참여하고 있는 군장병들에게 자장면 급식 봉사를 하고 있다. 3일 동안 3000명의 장병들이 자장면을 먹고 사기를 충전했다. 이를 위해 성인 스님과 30여 신도들은 매일 아침 7시부터 오후 11시까지 복구현장을 뛰고 있다. 녹유사의 선행은 2001년 문을 열면서 시작했다. 올해 5월 8회를 맞은 어른신 호도관광은 지역민들로부터 인기가 높다. 처음에는 30명이 참여했지만, 입소문이 나

해 600명의 어른신이 무료관광 혜택을 누렸다. 이렇게 1년 동안 선행을 위해 쓰이는 돈은 적게 잡아도 4000만원. 기도와 인당비 등 절 수입을 고스란히 투자한 액수다. 도량불사는 엄두도 내지 못하지만, 성인 스님과 녹유사 신도들은 이 길이 중생과 함께 하는 불교라고 믿기에 가까운 마음으로 봉사에 나서고 있다. 정선/글·사진=박봉영 기자 bypark@buddhapia.com



## 불교계 자비 손길은 계속된다

중단·단체·사찰 구호단 파견 등 줄이어

태고종은 성금 1000만원을 모아 수해지역에 전달하기로 하는 한편 총무원에 수재의연금 모금창구를 개설하고 중단 산하 23개 지방구총무원과 3천여 사찰을 대상으로 모금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와 함께 각 교구별로 수해지역 복구를 위해 봉사활동 및 구호활동을 할 자원봉사자를 10명씩 모집해 구호활동을 펼치고 있다. 천태종도 폭우로 인한 산사태로 토사에 파묻힌 진부 진강사 사찰 복구 작업에 전력을 다했다. 19일 복구 작업에는 포크레인 한 대를 비롯해 천태종 춘천 삼운사 신도회·합창단, 천태종복복지재단 자원봉사자, 진강사 신도 등 100여명이 동원됐다. 현재 나무뿌리와 철근 등이 뒤엉켜 있는 토사만 조금

남았을 뿐, 대부분의 토사는 건어낸 상태다. 진각종 총무원과 진각복복지재단 산하시설 종사자 20여 명으로 구성된 수해복구지원단은 21일부터 23일까지 평창군 진부면 하진부리 침터골을 찾아 피해 가옥 5채의 복구를 위해 구수함을 흘렸다. 통리원장 회정 정사도 22일 평창군 진부면 수해현장을 찾아 함께 구호활동을 펼쳤다. 밀각심인당 신교도들은 구호품으로 김치 77박스과 과일 등을 전달했다. 회정 정사는 이에 앞서 19일 KBS에 수재민들을 위해 써달라며 성금 1천만 원을 전달했다. 대한불자기수회(회장 김홍국)도 26일 평창군 부석면 일원에서 집청소 등 수해복구 자원봉사 활동

을 펼쳤다. 김홍국 회장을 비롯해 오은정 부회장, 김철선 명예회장, 원로 명국환, 나운아, 선선호 사무국장 등 30여 명이 집 안에 쌓인 흙과 오물들을 치우기도 했다(사진). 한국JTS 회원들은 26일 서울 인사동을 비롯해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등 9개 도시에서 거리모금 캠페인을 벌였다. 서울 인사동에서는 노회경 방송작가와 연극인 전무송씨 등이 참여한 “한반도에 희망의 무지개를”이란 구호를 외치며 도움을 호소했다. 봉선사 신도와 스님, 남양주 구리 시민연합회 회원 등 150여명도 27일 이번 수해피해가 가장 컸던 강원도 진부면 방문해 수재민들에게 라면과 쌀 등 구호품과 성금을 전달하고 봉사활동을 펼쳤다. 한편 조계종 총무원에 1억여원의 수해성금이 담지됐으며, 평창 월정사도 1억3000여만원의 성금을 접수했다. 김주일·김지연·박봉영·남동우 기자

## “교단내 성차별 사회관습 탓”

소운 스님 세미나서 주장

“서구불교인들은 ‘여성은 성불할 수 없다’던가 ‘여성이 출가하면 불법이 전멸한다’는 말을 하는 비구를 출가자로 인정하지 않는다.” 종교비판자유실현시민연대와 세계외국교육변혁을위한연대 주최로 7월 22일 만해NGO교육센터에서 열린 ‘종교적 성차별 문제에 대한 토론회’에서 불교측 발표자로 나선 소운 스님(서울 약사암 주지)은 불교의 근본사상에는 성차별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럼에도 대승불교의 맥을 잇고 있는 한국불교의 현실은 성차별이 존재한다고 지적한 스님은 한국불교 교단내 대표적인 성차별 사례로 △종정, 종회의원, 총무원장 등 종단의 핵심적인 역할 제한 △비구니 참정권 제한 △본사주지 자격제한

△본사주지 선거 비구니 배제 등을 꼽았다. 이에 대해 소운 스님은 “사회적 관습이 교단에 영향을 끼쳤기 때문”이라며 “종단에 팽배해 있는 관습적인 성차별의식은 제도적인 차별보다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스님은 이의 근거로 사회적 양성평등의식이 불교교단에 남아있는 성차별의식을 철폐하고 있는 서구 불교 사례를 들었다. 양성평등사회에서 성장한 서구인들은 불교교단에 남아있는 성차별의식은 부처님의 가르침에 위배된다고 해서 철저히 배제하고 있다는 것. 소운 스님은 “비구승가는 교단의 이권 독점화를 위해 성차별을 이용해서는 안되며, 비구니승가와 여성 재가자들 또한 스스로 여성을 비하하는 사고를 과감히 떨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봉영 기자

## 공무원 채용 응시원서에 개인종교 묻지 않기로

중앙인사위원회가 국가직 공무원의 공개채용 뿐만 아니라 특별채용 응시원서에서 시험과 무관한 정보를 요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종교자유정책연구원(이하 종자연)은 7월 26일 ‘중앙인사위원회로부터 ‘시험시행기관별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특별채용시험의 경우 시험과 직접 관련이 없는 무관한 사항은 국가직 공무원을 채용하면서 정보를 요구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밝혔다. 지난 달 20일 종자연이 중앙인사위원회에 ‘정부부처 및 산하 공공기관 입사시 종교자유 침해 개선요청서’를 접수한데 따른 답변이다. 박봉영 기자

## 7대 종교 지도자 모임 이스라엘 공격중단 촉구

7대 종교수장들이 이스라엘의 레바논에 대한 공격중단을 촉구했다. 불교 개신교 가톨릭 원불교 천도교 유교 민족종교협의회 등 7대 종교계 지도자 모임인 한국종교인평화회의(KCRP)는 7월 25일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그동안 이스라엘과 아랍세계 사이에 갈등이 누적되어 온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레바논에서 수십만 명의 피난민이 발생하게 된 것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공격중단을 호소했다. 이어 KCRP는 “인류는 어떤 이유로도 평화를 파괴하는 전쟁을 용납해서는 안된다”며 “한국 정부는 전쟁 종식과 중동지역의 평화질서 회복을 위한 국제적 노력과 난민 구호에 적극 동참하라”고 촉구했다. 성명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을 비롯해 KCRP 공동회장단과 김성곤 아시아종교인평화회의(ACRP) 사무총장이 함께 서명했다. 박봉영 기자

## 日 소장 ‘조선왕실 의궤’ 환수 추진

조선왕조실록환수추진

조선왕조실록환수위원회(공동대표 장남·철인, 이하 환수위)가 일본 공내부에 소장된 ‘조선왕실 의궤’를 찾아 나선다. 환수위 측은 7월 26일 <조선왕조실록>의 약탈 경위를 밝히는 과정에서 의궤의 행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환수위 총무간사 해문 스님은 “1922년에 조선총독부에 의해 강제 반출된 의궤는 일본 공내청 서릉부 왕실도서관에 소장돼 있다”며 “이런 사실은 2001년 해외전적문화재연구회(회장 천혜봉)에서 직접 조사해 이미 화계와 정부가 알고 있던 내용”이라고 밝혔다. 스님은 또 “지난 6월 1일 조선왕조실록찾기위원회로 간사 강해숙 의원을 통해 일본 공내청에 사실

확인서를 보냈고, 8월 중으로 반환 운동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조선왕실 의궤란 왕실의 주요 의식과 행사 등을 상세하게 적은 기록이다. 노병철 기자

**불교단체협의회구 결성**  
불교단체들이 상호간 지원체계를 갖추고 정책을 교류하기 위해 협의기구를 만든다. 조계종 중앙신도회와 참여불교 재가연대, 불교환경연대, 불교여성개발원, 교사불자연합회, 조국평화통일불교협회, 대한불교청년회 등 7개 단체는 7월 26일 서울 화계사에 모여 이같이 합의했다. 화계사 주지 수경 스님의 초청으로 모인 이들 단체 관계자들은 10월까지 창립하기로 했다. 박봉영 기자

## 목탁소리

2004년 3월 가사불사 취재차 들른 통도사주지 현문, 영산전 부처님 뒤로 여섯 대 재봉틀이 드르륵 드르륵 요란한 소리를 내며 돌아가고 있었다. 가사불사를 위한 바쁜 움직임이었다. 지난 7월 26일 다시 찾은 통도사. 가사불사는 입제에서 회향까지 기도만 드리는 형식으로 바뀌

었고, 기도를 집전하는 스님과 신도만 참석해 절령함을 더했다. 도현 스님의 지휘로 매일 3-40명의 불자가 25일 동안 정성다해 진행하던 통도사 가사 불사의 전통이 역사속으로 사라진 것이다. 통도사는 올해부터 중단방침에 따라 가사불사를 ‘승가법의원’에 의뢰하기로 했다. 따라서 그나마

## 사라지는 가사불사 전통

명맥을 이어가던 송광사, 조계사 더불어 가장 큰 규모로 계속되어 오던 통도사 가사불사의 모습은 더 이상 볼 수 없게 됐다. 조계종이 최근 중단 가사를 통일하고 제작 보급을 일원화함으로써 중단 위상 계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일부 사찰의 전통은 지켜가면서 의제통일의 취지를 살리는 방안이 포함되기를 바란다. ■조용수(취재부 기자)

# 사단법인 한국불교미륵종

## 입종 공고

빠르게 변모하는 사회상에 맞추어 불법을 효과적으로 포교하고 미륵부처님의 큰뜻인 융화세계를 구현할 뜻있는 스님들을 위해 본 종단의 문호를 개방하고 대덕 큰스님들의 많은 입종을 바랍니다

- 자격 : 사미, 사미니계를 수계한 승려
- 지역 : 전국 (타종단에서 체탈도침된자 제외)
- 대우 :
  - 본인의 능력과 희망에 따라 종단행정에 참여가능하며 각 지역별 교구원장으로 추천
  - 사회복지사업을 희망하는 스님들에게 행정 지원(사회복지법인허가취득)
  - 타 종단에서 수계한 법계인정
  - 종단기구에 보직을 원하는 스님은 중앙종회 심사후 가능

### 한국불교미륵종 연혁

- 1987년 10월 창종
- 2000년 12월 사단법인 한국불교미륵종 설립인가 (문화관광부 제229호)
- 2002년 5월 홈페이지개설 www.mireuk.org
- 2004년 2월 제3세 운허당 연화대중사 종정취임
- 2005년 12월 사회복지법인 미륵인 설립허가취득 (보건복지부)

## 행자모집

한국불교미륵종은 불교의 선진화를 앞두고 불법포교와 종단행정의 발전을 위해 젊고 유능한 행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 인원 : 00명
- 학력 : 고졸이상 (교육부에서 인정하는 동등한 학력소지자)
- 나이 : 40세이하
- 자격 : 부처님 제자로써의 바른 마음가짐과 신체건강한 남여
- 특전
  - 6개월간 총무원 직할 사찰에서 승려 기본교육을 시행하며 합동수계식후 승려증발급
  - 수계후 본인의 희망과 능력에 따라 안거수행할수 있도록 주선

### 접수및 문의처

한국불교미륵종 총본산 관음정사  
경남 김해시 진례면 신안리 900번지  
총무원 대표전화 055)345-4741  
서울사무소 : 서울시 은평구 구산동 211-11번지  
전화 02)351-3679

## 사단법인 한국불교미륵종 총무원장 윤송정